

『黃帝內經』의 思惟體系와 그 特徵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試論『黃帝內經』의 思維體系及特徵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一切事物都可以通過本體和運行兩個方面來分析，萬物生成與變化的主題是氣，『內經』的氣論就是對本體的思維體系。理解並說明氣如何運行和變化的思維體系就是陰陽五行論。在『內經』當中氣被解釋為無時不有，無處不在，運動不息，無形有徵的實體，是自然萬物和人類生命的根源，同時也是運動變化的主體。『內經』闡明氣的運行及作用的方式有兩種：一種是陰陽論，另外一種是五行論。陰陽的昇降及進退消長運動就是氣運動變化的基本形式，是四季的變化及萬物的生成，變化，發展的規律。一切事物都離不開這一法則。

『內經』五行論最大的特徵就是系統化。將宇宙萬物包括人分爲五個系統，同時認爲這五大系統是主宰萬物運動變化的五種勢力，掌握其五種勢力之間的相互作用。『內經』以氣論和陰陽五行論爲主幹，闡明了自然和人類生命活動的道理及自然和人類之間的關係。其中我們能找到如下幾個獨特的觀點：天人相應觀，形神合一觀，時空統一觀，恒動循環觀，系統層次觀等。『內經』將萬物根據陰陽，五行等作爲基準來進行系統化，各個系統內部存在一定的層次。同時系統和系統之間及高層和低層之間相互有機聯系，構成了統一的生命體。

關鍵詞：黃帝內經，氣，陰陽五行，思維體系

* 교신저자 : 정창현,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jeongch@khu.ac.kr Tel : 02-961-0337

* 본 논문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神에 대한 研究 -『黃帝內經』을 중심으로-"(경희한의대 논문집 제19권 제2호, pp. 174~223, 1997년 2월), "『黃帝內經』의 形神關係論"(대한원전학회지 Vol.11, No.2, pp. 27~35, 1998년 12월 28일), "『內經』의 月令(四時)-身體部位 配屬에 대한 易學的 解析"(대한원전학회지 Vol.12, No.2, 1999년 10월 31일), "黃帝內經 中的 時空模型에 대한 研究"(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5권 1호, 279~309, 2002.2.28),

I. 緒論

한의학이란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인체에 투영하여 질병의 원인과 기전을 파악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는 것에 관한 이론체계를 말한다

“『黃帝內經』 時空認識의 特徵”(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5권 2호, pp. 41-51, 2002. 10. 7) 등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둔다.

다. 한의학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동안 겪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의학지식과 여러 철학 이론들이 융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한의학의 형성은 대개 『黃帝內經』의 출현을 그 표지로 삼는다. 『內經』 역시 秦漢以前の 『禮記』, 『管子』, 『呂氏春秋』, 『淮南子』 등 여러 諸家의 실들을 融會貫通하여 醫學이론에 적용시키고 있다. 『內經』은 풍부한 과학적 이론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기술하고 있으며, 크게는 천자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논술하고 있다. 고대 여러 학파의 이론과 방법을 운용하여 생명의 원리를 탐구하여 한의학의 이론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內經』이 한의학 형성의 지표로 인정받고 또 한의학의 경전으로 추앙 받는 이유이다.

『內經』의 철학적 사유체계는 대부분 黃老學의 사유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들의 핵심 이론은 바로 氣論과 陰陽五行論이다. 우리는 흔히 서양과학의 연구방법이 原型 또는 物質模型인 것에 대비하여 전통과학의 대표인 한의학은 주로 사유모형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內經』에는 실제로 氣, 陰陽, 思想, 五行, 六氣, 八風, 九宮, 干支 등 다양한 사유모형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두가 氣思惟와 陰陽五行思惟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內經』의 사유체계의 기본은 바로 氣思惟와 陰陽五行思惟인 것이다.

『內經』은 氣論과 陰陽五行論을 근간으로 자연의 이치, 인간 생명활동의 이치,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독특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天人相應觀, 形神合一觀, 時空統一觀, 恒動循環觀, 系統層次觀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內經』의 기본사유체계인 氣論과 陰陽五行論을 本體와 作用이라는 두 방면에서 분석해보고, 이 두 가지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內經』 사유의 특징들을 탐구할 것이다.

II. 基本思惟

모든 사물은 본체와 운행(작용) 두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氣論은 바로 본체에 대한 思惟體系라고 볼 수 있다. 이는 氣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사물의 작용방면에서 본체인 氣가 어떻게 運行하고 變化하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고 체계는 陰陽五行論이 이에 해당한다.

1) 氣論 : 本體에 대한 인식(體)

(1) 宇宙(天地 또는 時空)의 근원

氣는 自然萬物의 根源이자 本體로서, 天地萬物의 統一的인 基礎이며, 萬物을 生成하는 本源이다. 기는 또한 時空의 本體이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 “天地合氣, 別爲九野, 分爲四時”라고 하였는데, 九野는 공간이고, 四時는 시간이다. 一切 萬物은 陰陽五行規律에 따라 運動變化하는데 그 運動變化의 본체 또는 본질은 氣이며, 결국 氣의 陰陽運動에 의해 空間의 移動, 時間의 流逝가 產生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氣가 없으면 時도 空도 없다(無氣無時, 無氣無空)”는 命題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시공이 곧 우주이니, 기는 곧 우주의 본체가 되는 것이다.

宇宙生成側面에서 볼 때, 『周易』에서는 太極으로부터 天地陰陽이 생겨나고, 天의 陽氣와 地의 陰氣의 相互作用에 의해 萬物이 生成된다고 認識하였는데, 太極은 宇宙生成의 根源으로, 역시 一種의 氣다. 다만 太極은 陰陽이 未分한 氣이다. 이같은 陰陽이 未分한 氣를 “元氣”, “精氣”라고도 하는데, 이는 『老子』의 “一”과 상통하는 의미이다. 『老子』에서 “道

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萬物”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二”는 陰氣와 陽氣를 말하고, “一”은 곧 陰陽이 未分한 狀態의 氣를 가리킨다. 陰陽이 未分한 狀態의 氣는 太極이며, 太極은 우주의 本源이며, 氣는 우주의 本體이다. 『內經』의 “太虛” 역시 無限한 宇宙空間을 지칭하며 그 속에는 만물을 生化케 하는 大氣가 충만해 있어서¹⁾, 天地의 萬物이 모두 이를 바탕으로 發生하게 되니, 곧 宇宙의 本源이 된다. 太虛의 狀態에서 “清陽爲天, 濁陰爲地”, “積陽爲天, 積陰爲地”(『素問·陰陽應象大論』)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宇宙 萬物이 形成되는데, 이로 볼 때 氣는 우주의 本質이 된다.

(2) 만물과 인체생명의 근원

사람이 氣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상은 春秋戰國時代에 이미 존재했다. 管子는 “凡物之精, 此則爲生, 下生五穀, 上爲列星”(『管子·內業』)²⁾이라 하여 精氣가 宇宙萬物을 構成하는 基本物質이라고 했고, 또 “凡人之生也, 天出其精, 地出其形, 合此以爲人.”(『管子·內業』)³⁾이라 하여, 人間도 또한 精氣에 依해 生成된 것이라 했으며, “氣者身之充也”(『管子·心術下』)⁴⁾라 하여 신체가 氣로 가득차 있다고 말했다. 『管子·樞言』에서는 “氣가 있으면 살고 氣가 없으면 죽으니, 살아 있음은 그 氣가 있기 때문이다

.”⁵⁾고 하여, 氣의 有無가 生死의 關鍵이 된다고 했다. 즉 그는 宇宙의 萬物이 모두 精氣로부터 生成된 것이며, 人間도 또한 精氣에 依해 生命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人體는 結局 氣로 가득 차있다고 보았다⁶⁾. 『易傳』에서도 “精氣爲物”(『繫辭上』)이라 하여 精氣가 모여 事物을 이룬다고 認識하였다. 또 “天地感而萬物化生”(『咸卦·象傳』), “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繫辭下』), “乾, 陽物也, 坤, 陰物也”라고 하여, 具體的으로 宇宙自然에서는 天과 地의 精氣가 만나서 萬物을 形成하며, 人體生命은 男과 女의 精氣가 만나서 形成된다고 보았다. 『莊子·知北游』에서는 “사람이 살아 있음은 氣가 모인 것으로, 氣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⁷⁾라고 하여 人間이 氣가 모여 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荀子·王制』에서는 “水火有氣而無生, 草木有生而無知, 禽獸有知而無義, 人有氣有生有知, 亦且有義, 故最爲天下貴也.”⁸⁾라 하여, 天地萬物과 人間이 모두 氣를 存在의 共通 分母로 삼고 있다고 했다. 『呂氏春秋』도 管子의 “精氣說”을 계승하였다. 이밖에 『鶡冠子』는 “元氣說”을 제출하였는데, 氣가 宇宙萬物의 本원이며 아울러 만물의 形態와 性質을 결정짓는다고 보았다.⁹⁾ 管子는 또 意識의 起源과 精神活動까지도 精氣說을 理容하여 解釋하였다. 예컨대, “凡物之精, 此則爲生, 下生五穀, 上爲列星, 流於天地之間, 謂之鬼神, 藏於胸中, 謂之聖人.”¹⁰⁾

1) 『素問·天元紀大論』에 “太虛寥廓, 肇基化元, 萬物資始, 五運終天, 布氣真靈, 摠統坤元, 九星懸朗, 七曜周旋, 日陰日陽, 日柔日剛, 幽顯既位, 寒暑地張, 生生化化, 品物咸章”이라 하고, 『素問·五運行大論』에 “夫變化之用, 天垂象, 地成形, 七曜緯虛, 五行麗地, 地者, 所以載生成之形類也, 虛者, 所以列應天之精氣也, 形精之動, 猶根本之與枝葉也, 仰觀其象, 雖遠可知也. 帝曰地之爲下否乎? 岐伯曰地爲人之下, 太虛之中者也. 帝曰馮乎? 岐伯曰大氣舉之也.”라고 했다. 이로 볼 때, 『內經』은 우주를 “太虛”라고 했는데, 이는 氣로 충만한 무한한 공간이며, 日月星辰과 대지가 모두 氣 속에 동등 떠 있으면서 각기 다르게 운동한다.

2) 漢文大系21, 管子纂註 卷16, p. 1

3) 漢文大系21, 管子纂註 卷16, p. 8

4) 漢文大系21, 管子纂註, 권13, pp. 10

5) “有氣則生, 無氣則死, 生者以其氣.”(『管子·樞言』)(漢文大系21, 管子纂註, 樞言第十二, pp. 14)

6) 이외에 『鶡冠子』에서는 “元氣說”을 주장하였는데, 氣가 우주 만물의 본원이며 만물의 형태와 성질을 결정한다고 했다. 『呂氏春秋』도 管子의 “精氣說”을 계승하였다.(吳光, 앞의 책, pp. 157, 175 참조)

7)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張基樞·李錫浩譯, 『老子·莊子』, 三省出版社, 1987, pp. 387)

8) 漢文大系15, 荀子, 권5, pp. 20

9) 吳光, 黃老之學通論, 浙江人民出版社. 1985. pp157, 175.

10) 『管子·內業』, 漢文大系21, 管子纂註, 권16, p. 1

이라 하여, 精氣가 五穀이나 列星 등 有形的인 物質을 生成할 뿐만 아니라, 鬼神이 되거나 胸中에 갈무리되어 聖人の 智慧가 된다고 했다.

이러한 氣本體論의 思考는 『內經』의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 『內經』 全篇에 걸쳐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天有精, 地有形, 天有八紀, 地有五里, 故能爲萬物之父母.”(『素問·陰陽應象大論』)라 하고, 또 “天地合氣, 六節分而萬物化生矣.”(『素問·至眞要大論』)라 하여, 天과 地의 기운이 섞하여 萬物이 生成된다고 하였으며, “人以天地之氣生”, “天地合氣命之曰人”(『素問·寶命全形論』)이라 하고, “氣合而有形”(『素問·六節藏象論』)이라 하여, 人間도 역시 天地의 氣가 한데 뭉쳐서 된 存在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內經』에서는 사람의 精·氣·津·液·血·脈 등이 결국 하나의 氣일 따름¹¹⁾이라고 主張하였고, 人體 各 臟腑器官의 機能活動 또한 氣의 作用에 의한 것¹²⁾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精神活動 또한 氣의 滋養을 받으며 또 氣의 作用을 통해 發顯된다¹³⁾고 생각했다. 이로 볼 때 『內經』은 先秦시대 氣本體論을 수용하여 人體생명의 근원을 氣라고 인식했다.

(3) 變化의 主體

氣는 끊임없이 運動 變化하는 主體 또는 原動力으로서 物質이 生成, 變化, 發展, 消滅하는 原因이다. 고대인은 人體를 비롯한 모든 萬物이 氣로 構成되어 있고, 기에는 運動의 本성이 있으며, 따라서 萬물은 氣의 끊임없는 升降出入에 의해 生成, 發展, 消滅의 變化를 거친다고 認識하였다. “氣始而生化하고 氣散而有

形하고 氣布而蕃育하고 氣終而象變하니 其致一也니라.”(『五常政大論』)라고 한 것은 바로 『內經』의 이 같은 觀點을 표현한 것이다. 萬물의 生成과 變화와 소멸, 動식물의 生育과 變식에 이르기까지 氣의 作用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러한 氣의 運動형식을 천지사이의 氣의 승강으로 인식하고, 자연계 일체 사물의 變化가 모두 천기와 지기의 끊임없는 승강작용에 근원한 것이라고 보았다.¹⁴⁾

인체가 생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氣의 승강출입이 있어야 하며, 승강운동이 없다면 생명은 유지될 수 없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出入廢하면 則神機化滅하고 升降息하면 則氣立孤危하니 故非出入이면 則無以生長壯老已오 非升降이면 則無以生長收藏이니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內經』에서 말하는 氣는 無時不有, 無處不在, 運動不息, 無形有微의 실체로서 자연萬물과 인간생명의 근원이며, 동시에 운동변화의 주체이다. 이는 현대물리학의 波動(場) 개념과 유사하다. 現리물리학의 觀點에서 모든 萬物은 각기 固有의 波動을 갖고 있다. 즉 자연과 인간이 모두 파동이라는 공통의 요소에 기초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의 思想(思考)조차도 波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른바 念波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사람의 身體는 電氣를 띠고 있어서 살아있는 한 周圍에 하나의 場을 繼續적으로 形成하고 있다¹⁵⁾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氣의 존재와 作用을 證明하는 것들이다.¹⁶⁾

14) “氣之升降, 天地之更用也.”(『素問·六微旨大論』), “故上下相召, 升降相因, 而變作矣.”(『素問·六微旨大論』), “上下相臨, 陰陽相錯, 而變由生.”(『素問·天元紀大論』)이라고 하였는데, 上下는 天地를 말하니, 天地의 陰氣와 陽氣가 서로 作用함으로 인해 變化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15) 이차크 벤토프 지음, 류시화·이상무 옮김,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정신세계사, 1992. pp. 84

16) 이외에도 오오라(AUR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빛의 형태로 인간

11) 『靈樞·決氣』 “余聞人有血氣津液血脈, 余意以爲一氣耳.”

12) 『靈樞·營衛生會』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於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13) “血者, 神氣也”, “血氣者, 人之神也”, “神者, 水穀之精氣也”, “神者, 正氣也”

2) 陰陽五行論 : 운행에 대한 인식(用)

『內經』에서 기의 운행 또는 작용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사유체계가 있다. 하나는 陰陽論이고, 다른 하나는 五行論이다. 『素問·天元紀大論』에서 “五運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라고 하여, 음양오행을 우주자연의 총규율로 인식하였다.

(1) 陰陽論

기는 만물의 근원인데, 기는 다시 음기와 양기가 있으니, 사시에 따른 음양기의 상하승강교류에 의해 만물이 생성변화 한다. “天爲陽, 地爲陰, 日爲陽, 月爲陰”은 만물이 항상 대립 사물이 존재함을 말한 것이다. 이는 필연적인 것으로, 당초 만물이 형성될 때 天의 陽氣와 地의 陰氣가 상합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본적으로 항상 陰陽의 모순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陽은 動을 주관하고 陰은 靜을 주관하며 陽은 升을 주관하고 陰은 降을 주관하니 陽이 나아가고 陰이 물러나는 시기에는 氣가 升하고 陰이 나아가고 陽이 물러나는 때는 氣가 降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氣의 승강은 陰陽의 進退消長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內經』에서는 기의 승강의 연원을 天地陰陽氣의 승강에서 찾고 있다. “故上下相召, 升降相因, 而變作矣.”(『素問·六微旨大論』), 上下相臨, 陰陽相錯, 而變由生.”(『素問·天元紀大論』)이라고 하였는데, 上下는 天地를 말하니, 天地의 陰氣와 陽氣가 서로 작용함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 “升已而降하니 降

者謂天이오 降已而升하니 升者謂地니라. 天氣下降하야 氣流於地하고 地氣上升하야 氣騰於天하니 故高下相召하고 升降相因하야 而變作矣니라.”(『素問·六微旨大論』)라고 하여, 天氣와 地氣의 陰陽升降運動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보았다. 즉 天氣의 하강하는 기운에 의지해 지기가 상승하며 地氣의 상승하는 기운에 의해 천기가 하강한다고 본 것이니, “升降相因”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음양의 승강운동에 의해 크게는 일년 四時의 계절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素問·五運行大論』에서 “陰陽之升降, 寒暑彰其兆”라고 하여, 四時에 따른 寒熱 변화가 陰陽의 승강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도리는 인체에도 마찬가지로 인체가 생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양승강운동이 있어야 하며, 승강운동이 없다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 『素問·六微旨大論』에서 “出入廢하면 則神機化滅하고 升降息하면 則氣立孤危하니 故非出入이면 則無以生長壯老已오 非升降이면 則無以生長化收藏이니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인체 12經脈의 陰經과 陽經의 순행만 보아도 陽經은 손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다리로 가므로 천기가 하강하는 상이며, 陰經은 다리에서 흉복부로 흉복부에서 손으로 가므로 지기가 상승하는 상이다. 이외에도 『內經』의 陰陽升降理論은 한의학의 각 방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¹⁷⁾

이러한 연유로 『內經』에서는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素問·四氣調神大論』)라고 하여 사시의 음양변화가 만물의 발생, 성장, 소멸의 근본원인이 된다고 하였고,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素問·四氣調神大論』)라고 하여 음양이 천지자연이 운동변화하는 근본 규율이라고 하였다. 음양은 만물이 생

은 물론이고 동물이나, 식물 심지어 돌이나 바위, 금속의 주위에 나타나는 것으로, 근래에는 이것을 찍을 수 있는 사진기는 물론이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안경까지도 나왔다고 한다.(강대봉, 『氣』, 도서출판 언립, 1994. pp. 29 참조) 일다시피 현대물리학에서는 빛이 파동과 입자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오오라 또한 일종의 氣라고 볼 수 있다.

17) 心腎水火相濟說, 약물의 升降浮沈理論, 四時脈 등이 그 예이며, 李東垣의 脾胃論 또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변화하는 근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근본 규율이기도 한 것이다. 『內經』은 天地自然의 운동,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활동도 陰陽運動을 근본으로 한다고 인식하였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형체를 등에 陰陽을 벗어나지 않는다.”¹⁸⁾라고 한 것이나, 『素問·生氣通天論』에서 “무릇 예로부터 하늘의 이치에 통한 사람은 생명의 뿌리를 陰陽에 근본하였다.”¹⁹⁾라고 한 것은 곧 사람의 생명활동이 陰陽을 벗어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陰陽은 하늘과 땅의 도리요 만물의 버리며 변화의 부모이며 낳고 죽이는 근본과 시작이며 神明의 곳집이니,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근본에서 구해야 합니다.”²⁰⁾라고 한 것은 內經의 자연과 인간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음양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집약한 것이다.

이처럼 음양의 승강과 진퇴소장운동은 천지 만물의 본체인 기가 운동변화는 기본 형식으로 사시의 계절 변화와 만물이 생성, 변화, 발전하는 규율이 되며, 만물은 모두 이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

(2) 五行論

『內經』에서는 陰陽과 마찬가지로 五行을 우주의 보편적인 규율로 인식하였으니, 『靈樞·陰陽二十五人』에서는 “天地之間, 六合之內, 不離於五, 人亦應之, 非徒一陰一陽而已”라 하였고, 『素問·天元紀大論』에서 “五運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라고 하였다.

표1. 『月令』의 五行配屬表

五行	四時	四方	天干	帝	神	蟲	數	味	臭	祀	五藏	音
木	春	東	甲乙	大皞	句芒	鱗	八	酸	膻	戶	脾	角
火	夏	南	丙丁	炎帝	祝融	羽	七	苦	焦	竈	肺	徵
土		中央	戊己	黃帝	后土	裸	五	甘	香	饗	心	宮
金	秋	西	庚申	少皞	蓐收	毛	九	辛	腥	門	肝	商
水	冬	北	壬癸	顓頊	玄冥	介	六	鹹	醜	行	腎	羽

五行이란 말은 『尙書·洪範』에 처음 나오는데, “一, 五行,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라고 하였다. 『洪範』의 오행은 다섯가지 기본 물질을 가리키며, 『左傳』의 五材²¹⁾와 같은 의미였다. 春秋時代에 들어서서 五行은 以前的 物質概念에서 包括的, 抽象的, 哲學的 概念으로 變化發展하기 始作하였다. 同時에 五行相互關係에 對한 認識이 발달하여 五行各各이 서로 獨立的인 아닌 相互 密接한 聯關을 가진 概念으로 發展하였다. 『月令』과 『呂氏春秋·十二紀』가 그 代表的인 著作이다. 『月令』은 東周春秋時期的 作品으로 五行을 廣範圍하게 自然界, 時間, 空間과 연계하여 一切의 自然現象을 包括하는 一種의 宇宙體系를 形成하였다. 『呂氏春秋』는 戰國末期의 著作으로 그 中 「十二紀」의 內容은 『月令』의 內容과 一致한다. 그 內容을 分析해보면 五行-四時-四方(五方)을 바탕으로 天地自然의 一切事物 및 現象을 分類하고 解釋하였다. 이로부터 『月令』時代에 이미 基礎的인 五行宇宙體系가 形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人生有形, 不離陰陽

19)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20)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於本.

21) 『左傳』襄公27年條曰“天生五材, 民并用之”, 『左傳』昭公11年條曰“且譬之如天, 其有五材而將用之.”

표2. 『管子』中の 五行配屬綜合表

五行	色	味	季	方	聲	數	飲用水	氣	日	臟	體	五官	治氣	旺日
木	青	酸	春	東	角	八	東方井	風	甲乙	脾	骨	鼻	燥氣	72
火	赤	苦	夏	南	羽	七	西方井	陽	丙丁	肝	氣	目	陽氣	72
土	黃	甘		中	宮	五	中央井			心	皮	下竅	和氣	72
金	白	辛	秋	西	商	九	西方井	陰	庚辛	腎	燥	耳	濕氣	72
水	黑	鹹	冬	北	徵	六	北方井	寒	壬癸	肺	血	口	陰氣	72

戰國中期的『管子』 역시 五行-四時(五時)-五方的 宇宙觀을 反映하고 있다. 『管子』의 五行論적 宇宙觀은 주로 「水地」, 「四時」, 「幼官」, 「五行」 등 四篇에 보이는데, 그 내용을 圖表로 整理하면 아래와 같다.

『內經』은 五行理論을 바탕으로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을 하나의 계통으로 체계화함으로써, 天人相應理論의 根幹으로 삼았다. 이는 『素問·金匱真言論』, 『素問·陰陽應象大論』, 『素問·六節藏象論』, 『素問·五運行大論』, 『素問·五常政大論』, 『素問·宣明五氣』,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 등 여러 편에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도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의 五行系統表²²⁾과 같다.

『內經』은 五行論을 이용하여 天-地-人을 系統化하여 一種의 포괄적인 五行宇宙體系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人體에 있어서 五行系統은 五藏系統으로 體現하였다.

표3. 五行系統表

		木	火	土	金	水
天	方位	東	南	中	西	北
	季節	春	夏	長夏	秋	冬
	氣候	風	熱	濕	燥	寒
	星宿	歲星	熒或星	鎮星	太白星	辰星
	生成數	3+5=8	2+5=7	5	4+5=9	1+5=6
地	品類	草木	火	土	金	水
	五畜	鷄	羊	牛	馬	豕
	五穀	麥	黍	稷	稻	豆
	五音	角	徵	宮	商	羽
	五色	青	赤	黃	白	黑
	五味	酸	苦	甘	辛	鹹
人	五臟	肝	心	脾	肺	腎
	九竅	目	耳	口	鼻	二陰
	五體	筋	脈	肉	皮毛	骨
	五聲	呼	笑	歌	哭	呻
	五志	怒	喜	思	憂(悲)	恐
	病變	握	憂(噎氣逆)	噦	咳	腰股(四肢)
	病位	頸項(頭)	胸脇	脊	肩背	腰股

『內經』에서 木火土金水는 이미 物質實體의 意味를 超越하여, 物質實體 및 事物의 屬性, 法則等을 包括하는 思維體系로 發展하였다. 木은 溫和, 發散, 生發, 直升, 屈伸, 疏泄條達……, 火는 溫熱, 擴散, 橫升, 光明, 興發, 變化……, 土는 培養, 孕育, 調節, 仲裁, 包容, 圓滿……, 金은 收斂, 抑制, 肅殺, 清涼, 肅降, 潔白……, 水는 潛藏, 寒涼, 下行, 終結, 潤下…… 등의 概念을 包括하고 있다. 『內經』의 五行은 이미 非物質實體로서 天地自然의 다섯가지 分類基準을 包括하는 代表名詞, 概念, 또는 思維模型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認識의 基礎下에 自然의 一切萬物과 現象을 五大系統으로 分類하였고, 이는 天-地-人 相應思想을 더욱 確固하게 하는 根據를 提供한 것이다.

『內經』의 五行系統은 또 人體生命系統, 즉 五藏生命系統이기도 하다. 『內經』中「木氣」, 「火氣」, 「土氣」, 「金氣」, 「水氣」 등의 記載는 五行을

22) 王琦 外 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韓國; 25

一種의 氣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先秦時代에 모든 만물이 氣로 이루어졌다는 사상과 五行법칙에 따라 운동변화한다는 사상이 확립되고 이것이 인간도 역시 우주만물 중의 하나라는 사고와 결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생명활동현상을 五行原理로 파악하려는 사고가 產生되었는데, 이것이 곧 五藏生命系統의 來源이다. 『內經』은 先秦時代 氣論 및 五行學說, 天人相應思想 등을 繼承發展시켜 人體의 藏府組織, 生理病理現象, 自然事物과 現象에 대해 廣範圍한 分類과 聯系를 지어서 人體를 五藏을 中心으로 하는 五個生命系統으로 歸納하였다. 아울러 自然界의 五方, 五時, 五氣, 五味, 五音과 人體의 五藏, 五體, 五官, 五志, 五神, 五聲 등을 聯系하고, 五行의 相生相勝으로 五藏間의 相互關係를 說明, 이를 疾病의 診斷과 治療, 豫防 등에 適用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內經』 오행론의 가장 큰 특징은 계통화이다. 즉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사물을 다섯가지로 계통화하고, 대표하는 사물의 속성에 따라 각 계통의 특성을 규정하였다. 동시에 이들 다섯가지 계통을 만물의 운동 변화를 주도하는 다섯가지 세력으로 인식하고, 만물의 운동 변화를 다섯가지 세력간의 상호 유기적인 작용으로 파악하였다.

III. 思惟의 特徵

1) 天人相應

『內經』에서는 인간이 天地自然의 氣에 의해 생성되며, 天地自然에 의지하여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생명활동을 영위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天人相參”²³⁾ 또는 “天人相應”²⁴⁾, “天人共紀”²⁵⁾라고

23) 『靈樞·歲露』, “人與天地相參也.” 『素問·咳論』, “人與天地相參.” 『靈樞·刺節眞邪』, “人參天地.” 『靈樞·經水』, “此人之所以參天地以應陰陽也.”

표현하였다. 『內經』의 天人相應論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구조적 측면의 천인상응과 기능적 측면의 천인상응이다.

첫째, 형태적 구조적 측면에서 인간과 天地自然은 서로 대응한다.

이에 대해서는 『素問·陰陽應象大論』²⁶⁾, 『靈樞·陰陽繫日月』²⁷⁾, 『靈樞·經別』²⁸⁾, 『靈樞·經水』²⁹⁾, 『靈樞·海論』³⁰⁾, 『靈樞·邪客』 등 여러 편

24) 『靈樞·邪客』, “此人與天地相應者也.”

25) 『靈樞·營衛生會』, “人與天地共紀”

26)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惟賢人上配天以養頭, 下象地以養足, 中傍人事以養五藏”이라 하여 인간의 머리를 하늘에 비유하고, 다리를 땅에 비유하였으며, 또 “六經爲川, 腸胃爲海”라 하여 인체의 十二經脈과 腸胃를 자연의 川과 海에 비유하였다.

27) 『靈樞·陰陽繫日月』에서는 “腰以上爲天, 要以下爲地 …, 故足之十二經脈, 以應十二月, … 手之十指, 以應十日.”이라 하여, 인체에서 허리 이상은 하늘에 해당되고, 허리 아래는 땅에 해당된다고 했고, 인체의 十二經脈은 十二月에 응하며, 열 손가락은十日에 응한다고 했다.

28) 또 『靈樞·經別』에서는 “黃帝問於岐伯曰: 余聞人之合於天道也, 內有五藏, 以應五音五色五時五味五位也. 外有六腑, 以應六律. 六律建陰陽諸經, 而合之十二月十二辰十二節十二經水十二時十二經脈者, 此五藏六腑之所以應天道.”이라 하여, 인체의 五藏은 五音, 五味, 五色, 五時, 五位에 응하며, 六腑는 六律에 응하며, 인체의 十二經脈은 十二月, 十二辰, 十二節, 十二經水, 十二時에 응한다고 했다.

29) 『靈樞·經水』에서는 “經脈十二者, 外合於十二經水.”라 하여, 인체를 유지하는 十二經脈이 天地自然의 十二經水에 상합한다고 하였으며, “足太陽外合於淸水, 內屬於膀胱, 而通水道焉. 足少陽外合於渭水, 內屬於膽. 足陽明外合於海水, 內屬於胃. 足太陰外合於湖水, 內屬於脾. 足少陰外合於汝水, 內屬於腎. 足厥陰外合於澗水, 內屬於肝. 手太陽外合於淮水, 內屬於小腸而水道出焉. 手少陽外合於漯水, 內屬於三焦. 手陽明外合於江水, 內屬於大腸. 手太陰外合於河水, 內屬於肺. 手少陰外合於濟水, 內屬於心. 手心主外合於漳水, 內屬於心包.”이라 하여, 구체적으로 十二經脈을 十二經水에 배속시켰다.

30) 『靈樞·海論』에서는 “岐伯答曰: 人亦有四海, 十二經水. 經水者, 皆注於海, 海有東西南北, 命曰四海. 黃帝曰: 以人應之奈何. 岐伯曰: 人有髓海, 有血海, 有氣海, 有水穀之海, 凡此四者, 以應四海也.”라 하여, 天地自然에 十二經수와 四海가 있듯이 인체에도 十二經脈과 髓海, 氣海, 水穀之海, 血海 등의 四海가 있다고 했다.

에서 보인다. 그 중 『靈樞·邪客』편이 가장 대표적인 편인데, 그 내용을 보면

黃帝 | 問於伯高曰願聞컨대 人之肢節이 以應天地는 奈何니잇고. 伯高 | 答曰天圓地方하니 人頭圓足方하야 以應之하고, 天有日月하니 人有兩目하고, 地有九州하니 人有九竅하고, 天有風雨하니 人有喜怒하고, 天有雷電하니 人有音聲하고, 天有四時하니 人有四肢하고, 天有五音하니 人有五藏하고, 天有六律하니 人有六府하고, 天有冬夏하니 人有寒熱하고, 天有十日하니 人有手十指하고, 辰有十二하니 人有足十指와 莖垂하야 以應之로대 女子는 不足二節하야 以抱人形하고, 天有陰陽하니 人有夫妻하고, 歲有三百六十五日하니 人有三百六十節하고, 地有高山하니 人有肩膝하고, 地有深谷하니 人有腋膕하고, 地有十二經水하니 人有十二經脈하고, 地有泉脈하니 人有衛氣하고, 地有草葉하니 人有毫毛하고, 天有晝夜하니 人有臥起하고, 天有列星하니 人有牙齒하고, 地有小山하니 人有小節하고, 地有山石하니 人有高骨하고, 地有林木하니 人有募筋하고, 地有聚邑하니 人有膈肉하고, 歲有十二月하니 人有十二節하고, 地有四時不生草하니 人有無子니이다. 此 | 人 이 與 天地로 相應者也니이다."

라고 하여, 인간과 천지자연의 형상적 대응 관계를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외에도 『素問·三部九候論』에서는 인체를 上部(天), 하부(地), 중부(人)로 나누고 다시 각각을 三部(天地人), 또는 上中下)로 나누어 모두 아홉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자연을 天地人으로 인식하였던 三才思想과 天下를 아홉(九州, 九野)으로 나누었던 것에서 연원한 것이다³¹⁾.

31) 이러한 사상은 『靈樞·九宮八風』과 『靈樞·九鍼論』에서도 볼 수 있다. 즉 『靈樞·九宮八風』에서는 “是故太一入從立於中宮, 乃朝八風. 以占吉凶也. 風從南方來, 名曰大剛風. 其傷人也, 內舍於心, 外在於脈, 氣主熱. 風從西南方來, 名曰謀風. 其傷人也, 內舍於脾, 外在於肌. 其氣主爲弱. 風從西方來, 名曰剛風. 其傷人也, 內

舍於肺, 外在於皮膚, 其氣主爲燥. 風從北方來, 名曰折風. 其傷人也, 內舍於小腸, 外在於手太陽脈. 脈絕則溢, 脈閉則結不通, 善暴死. 風從東方來, 名曰大剛風. 其傷人也, 內舍於腎, 外在於骨與肩背之筋, 其氣主爲寒也. 風從東方來, 名曰凶風. 其傷人也, 內舍於大腸, 外在於兩脇腋骨下及肢節. 風從東方來, 名曰嬰兒風. 其傷人也, 內舍於肝, 外在於筋紐, 其氣主爲身濕. 風從東南方來, 名曰弱風. 其傷人也, 內舍於胃, 外在於肌肉, 其氣主體重.”이라 하여, 八風の 종류와 그에 따른 인체의 손상 부위를 배속하였다. 『靈樞·九鍼論』에서는 “黃帝曰願聞身形, 應九野, 奈何. 岐伯曰請言身形之應九野也, 左足應立春, 其日戊寅己丑. 左脇應春分, 其日乙卯. 左手應立夏, 其日戊辰己巳. 應喉首項應夏至, 其日丙午. 右手應立秋, 其日戊申己未. 右脇應秋分, 其日辛酉. 右足應立冬, 其日戊戌己亥. 腰尻下竅應冬至, 其日壬子. 六腑屬下三歲應中州, 其大禁, 大禁太一所

在之日, 及諸戊己.이라 하여, 인체의 각 부위를 九宮과 배속하였다.

이러한 사유의 특징은 자연과 인간이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시에 음양오행이 운행의 공통규율이라는 전제 하에 형성된 것이다.

첫째, 인간의 생성 측면에서, 인간은 天氣와 地氣의 통합으로 태어나며, 天地의 氣가 교류하는 사이에 위치하여 생명활동을 영위한다.

『靈樞·本神』에서는 “天之在我者, 德也, 地之

在我者，氣也，德流氣薄而生者也。”라 했고,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人以天地之氣生，四時之法成”，“天地合氣，命之曰人”라 하였으며, 『素問·六微旨大論』에서는 “上下之位，氣交之中，人之居也.”라 하여, 인간은天氣와 地氣가 합쳐져서 생겨난 존재로서, 이 세상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이며, 天氣와 地氣가 교류하는 가운데서 삶을 영위한다고 했다.³²⁾

둘째, 인간은 천지자연과 마찬가지로 陰陽五行을 근본으로 생성, 변화,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天地自然에 항상 통해 있다. 『靈樞·營衛生會』에서 “人與天地共紀”라고 하였으니, 인간과 천지자연이 공통의 규율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예컨대, 『素問·舉痛論』에서는 “善言天者，必驗於人.”이라 하여, 자연과 인간의 이치가 한가지임을 말하였고, 『靈樞·逆順肥瘦』에서는 “聖人之爲道者，上合於天，下合於地，中合於人事.”라 하여, 天地와 人事가 상응함을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素問·至眞要大論』에서는 “天地之大紀，人神之通應也.”라 하여, 天地의 대법칙에 인간의 神明이 통하여 응한다고 하였다.

자연과 인간이 공통으로 갖는 규율로 『內經』은 陰陽五行을 제시하였고, 인간은 이 陰陽五行의 법칙에 따라 생명을 영위한다고 했다. 즉 『素問·生氣通天論』에서는 “夫自古通天者，生之本，本於陰陽.”이라 하여, 인체가 天地와 마찬가지로 그 근본을 陰陽에 둬으로써 天地에 통한다고 인식했다. 그리고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는 “夫四時陰陽者，萬物之根本也니 所以聖人春夏養陽하고 秋冬養陰하야 以從其根하니 …… 故陰陽四時者，萬物之終始也오 死生之本也라 逆之則災害生하고 從之則苛疾不起

하니 是謂得道니라.”라고 하여, 四時陰陽의 운동이 만물의 근본이며 死生의 근본이므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四時의 陰陽變化에 순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素問·陰陽應象大論』 “陰陽者，天地之道也오 萬物之綱紀오 變化之父母오 生殺之本始오 神明之府也니 治病必求於本이니라.”라고 하여, 陰陽이 天地自然의 법도이며, 만물의 버리며, 생명이 죽고 사는 바탕이 되므로 질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근본인 陰陽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內經』은 五行理論을 바탕으로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을 하나의 계통으로 체계화함으로써, 天人相應理論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는 『素問·金匱真言論』, 『素問·陰陽應象大論』, 『素問·五運行大論』, 『素問·五常政大論』, 『素問·宣明五氣』 등 여러 편에서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內經』은 선진 체계의 여러 학설들을 종합하여 한층 더 복잡하고 차원 높은 天人關係論, 즉 氣本體論과 陰陽五行思想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계통적인 天人相應論을 정립하였으며, 이러한 『內經』의 天人相應觀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밝히고 아울러 자연계의 변화현상으로 인체의 생리 병리현상 및 병리변화규율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 이론적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물리학에서도 자연과 인간이 파동이라는 공통의 요소위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차크 멘토프는 “우리자신은 실제로 이런 저런 소리(파동)를 통해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일종의 진동체이며, 그 속에는 어느 것 하나 고정되고 정지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³³⁾라고 하여, 인간과 자연이 파동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³⁴⁾고 주장했

32) 이외에도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天有精，地有形，天有八紀，地有五里，…… 天氣通於肺，地氣通於嗚，風氣通於肝，雷氣通於心，谷氣通於脾，雨氣通於腎.”이라 하여, 天의 精과 地의 形이 협조하여 인간을 만들고, 天地自然의 각각의 기운들이 인체의 五藏六府와 통한다고 인식하였다.

33) 이차크 멘토프 지음, 류시화·이상무 옮김,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정신세계사, 1992. pp. 73

34) 실제로 지구의 고유한 진동수는 7.5Hz이며 사람의

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파동의 개념은 한의학의 氣와 유사한 것으로, 멘토프의 말은 『內經』의 天人相應思想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形神合一

『黃帝內經』에서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가 결합한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만약 두요소가 서로 떨어지면 생명은 곧 소멸된다고 생각했다. “形與神具而盡終其天年”(『素問·上古天真論』), “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而周於性命者也.”(『靈樞·本藏』), “形體不蔽, 精神不散, 亦可以百數”(『素問·上古天真論』) 등은 모두 形과 神이 합일되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고, “人身與志不相有, 曰死”(『素問·逆調論』), “神氣皆去, 形骸獨居而終矣.”(『靈樞·天年』) 등은 모두 形과 神이 분리되면 곧 죽게 됨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黃帝內經』의 이러한 인간관을 形神合一論의 人間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氣論과 陰陽五行論을 바탕으로 성립된 사유특징이다.

(1) 精神과 肉體사이에는 陰陽과 같은 對待적인 특성이 있다.

『黃帝內經』에서는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素問·陰陽應象大論』)라 하여, 天地自然의 모든 만물이 陰陽運動을 바탕으로 생성, 변화,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고 인식했다. 『黃帝內經』은 이러한 陰陽의 법칙을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인체의 모든 생명활동 현상을 이해하고 또 설명하려 했다. 예컨대, 『

고유한 진동수는 6.8~7.5Hz로 공명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깊은 잠에 빠졌을 때나 명상에 들었을 때의 뇌파가 7.5Hz로 더욱더 지구의 진동과 공명이 잘 되어 지구로부터 엄청난 기운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앞의 책,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pp. 86, 강대봉, 『氣』, 도서출판 언립, 1994. pp. 41 참조)

素問·寶命全形論』에서 “人生有形, 不離陰陽”이라 한 것은 곧 인체가 陰陽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黃帝內經』이 인간을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로 본 것도 인간을 陰陽論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張介賓도 “命之所繫, 惟陰與陽”³⁵⁾이라 하여, 생명활동도 결국은 음양운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 “夫陰陽之體曰乾與坤, 陰陽之用曰水與火, 陰陽之化曰形與氣, …… 形即精也, 精即水也, 神即氣也, 氣即火也.”(『類經附翼·大寶論』)³⁶⁾라 하여, 인간의 육체는 水, 陰에 속하고 정신은 火, 陽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물은 내부의 陰과 陽이 서로 통일되고 조화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운동변화할 수 있으며, 陰과 陽이 서로 분리되면 사물의 운동변화가 멎게 된다. 다시 말하면 陰과 陽은 각기 따로 독립해서는 존재할 수 없다(孤陽不生, 獨陰不長).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 역시 육체와 정신이 서로 통일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정신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면 생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즉 정신이 있음으로 해서 육체가 생명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육체가 있음으로 해서 정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의 共生共存의 관계는 상대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가능하게 되는 陰陽의 對待的인 특성³⁷⁾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육체와 정신의

35) 張介賓, 『類經附翼』, 大星文化社, 1986. pp. 272

36) 앞의 책, pp. 272

37) 이에 대해서는 최영진도 『周易』의 陰陽理論을 도입하여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대대적 관계로 규정하였다. 즉 그는 “음양의 관계를 정신과 물질의 문제에 적용시킨다면, 정신과 물질 그 자체가 대대적 관계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 物이며, 정신과 물질을 초월한 실체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 된다.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정신과 물질이라는 개체가 결합되어 하나의 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物이라는 유기적인 통일체의 대대적인 두 측면 또는 두 작용의 양상을 정신과 물질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다.(최영진, “精神과 物質의 문제에 관한 易學的

관계에 대해 張介賓은 또한 內外關係, 體用的關係로 설명하였다. 예컨대, “形成於外, 神藏於內”³⁸⁾라 하여,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內外的인 對待關係가 있다고 했으며, 또 “形者神之體, 神者形之用, 無神則形不可活, 無形則神無以生.”³⁹⁾이라 하여, 육체와 정신 사이에는 體用的 對待關係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정신과 육체를 대대적인 관계로 보는 『黃帝內經』의 사고는 현대 물리학의 양자이론에서 사물을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체들로 분석하는 입장을 버리고 그 보다는 쪼개어지지 않는 전체로 보려고 하는 관점과 유사한 면이 있다.⁴⁰⁾ 실제로 풀은 정신과 육체의 대대적인 관계를 파동과 입자의 대대적인 관계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였다.⁴¹⁾

(2) 氣는 形神合一의 媒介體이다.

『黃帝內經』에서는 氣에 물질적인 특성과 정신적인 특성이 모두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예컨대, “氣合而有形”이라 한 것은 氣가 뭉치면 형태가 된다는 뜻으로 氣에 물질적인 특성이 있음⁴²⁾을 말한 것이며, “血氣者, 人之神也”라

한 것은 氣가 또한 神으로도 化할 수 있다는 뜻으로 氣에 정신적인 특성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氣機의 失調은 육체와 정신 모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예컨대, 『素問·刺志論』에서 “氣實形實, 氣虛形虛, 此其常也.”라 하였는데, 이는 氣의 虛實이 육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말한 것이다. 또 “其神易動, 其氣易往”(『靈樞·行鍼』)이나 “愁憂者氣閉塞而不行”(『靈樞·本神』) 등은 精神이 氣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 것이다⁴³⁾. 이로 볼 때, 氣는 육체와 정신의 중간물로서 形과 神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협조와 통일에 의해서만이 생명활동이 가능한 것인데, 氣가 곧 정신과 육체 사이의 협조와 통일을 가능케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다. 『靈樞·本神』에서도 “肝藏血, 血舍魂”, “心藏脈, 脈舍神”, “脾藏營, 營舍意”, “肺藏氣, 氣舍魄”, “腎藏精, 精舍志”라고 하여, 肝, 心, 脾, 肺, 腎 등의 五藏과 魂, 神, 意, 魄, 志 등의 다섯가지 정신작용이 血, 脈, 營, 氣, 精 등의 다섯가지 기운을 매개로하여 상호작용한다고 인식했다.

이와 같이 인체를 形, 氣, 神의 합일체로 보는 사상은 『黃帝內經』이전에도 이미 존재했었다. 즉 『淮南子·原道訓』에서는 “夫形者, 生之舍也. 氣者, 生之充也. 神者, 生之制也. 一失位則三者傷矣.”라고 하여, 생명은 形과 氣와 神의 세 요소가 통합하여 된 것으로, 이 중 하나라도 이상이 발생하면 나머지도 모두 손상된다는 것이다. 즉 形과 氣와 神이 합쳐서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데, 形은 생명이 깃드는 곳이며, 氣는 생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며, 神은 생명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考察”, 『주역의 현대적 조명』, 韓國易學會編, 범양사, 1993, pp. 398)

이를 인간에 비유해 보면, 정신과 육체는 각각이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정신과 육체가 통합된 존재의 두 측면이라는 것이다.

38)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1986, pp. 299

39) 앞의 책, pp. 439

40) 폴 데이비스 지음, 류시화 옮김,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정신세계사, 1989, pp. 171

41) 앞의 책 pp. 166

엄격히 말한다면, 입자는 形에 해당하는 것이며, 파동은 氣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神도 일종의 氣라고 볼 수 있으며, 또 氣는 神의 발현이므로 정신과 육체의 대대적인 관계와 파동과 입자의 대대적인 관계는 상당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2) 이외에도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形歸氣” “氣生形”이라 하여 形과 氣가 相互轉化할 수 있다고 하였다.

43) 이외에도 『素問·調經論』에서 “血并於上, 氣并於下, 心煩惋善怒. 血并於下, 氣并於上, 亂而喜忘.”이라 한 것이나, 『靈樞·五亂』에서 “清氣在陰, 濁氣在陽, 營氣順脈, 衛氣逆行, 清濁相干, 亂於胸中, 是謂大惋. 故氣亂於心, 則煩心密嘿, 俛首靜伏.”라고 한 것은 氣機의 실조로 인해 정신이 손상되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여기서의 形은 筋, 骨, 皮毛, 肌肉, 藏府 등 공간을 차지하는 인간의 육체를 말한 것이며, 氣는 精, 氣, 津, 液, 血, 脈 등의 形을 구성하고 영양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氣를 말한 것으로 그것의 운동과 기능활동도 포함하는 것이며, 神은 인체의 생명활동을 통제하는 無形의 정신을 말한 것이다.

『黃帝內經』에도 이와 비슷한 언급이 보이는데, 『靈樞·根結』에서 “調陰與陽, 精氣乃光, 合形與氣, 使神內藏.”이라 하였다. 비록 『淮南子』의 서술방식과는 다르지만 역시 인간의 생명이 形과 氣와 神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으며 또 神이 전체적인 생명활동을 주재한다고 본 점에서는 똑같다.

결국 神은 氣血의 운동을 통제함으로써 藏府, 筋骨, 肌肉 등의 형체를 滋養하거나 형체의 기능활동을 주관하며, 또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의 治癒를 촉진할 수 있다. 반면에 形은 氣血을 생성하고 저장하여 神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神이 기능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육체의 변화는 氣의 변화를 거쳐 정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⁴⁴⁾, 반대로 정신의 변화는 氣의 작용을 거쳐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⁴⁵⁾. 결국 육체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모든 변화현상은 모두 氣의 작용을 통해 발현된다. 『黃帝內經』에서 질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氣의 상태를 살펴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중시⁴⁶⁾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3) 時空統一

44) “夏刺肌肉, 血氣內去, 令人善恐, 夏刺筋骨, 血氣上逆, 令人善怒. 秋刺經脈, 血氣上逆, 令人善忘. …… 冬刺肌肉, 陽氣竭絕, 令人善忘.” 『素問·四時刺逆從論』

45) “若有所大怒則, 氣上而不下, 積於腸下, 則傷肝.” 『靈樞·邪氣藏府病形』

“憂恐忿怒傷氣, 氣傷藏, 乃病藏.” 『靈樞·壽夭剛柔』

46) “工巧神聖, 可得限乎. 岐伯曰審察病機, 無失氣宜, 此之謂也.” 『素問·至真要大論』

이는 곧 時空一體性を 말한 것이다. 古代中國哲學에서는 처음부터 時空을 서로 分離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現在 널리 사용되고 있는 “宇宙”라는 말 自體가 이미 時空의 意味를含蓄하고 있다. 『屍子』에서 “四方上下曰宇, 往來古今曰宙”라 했는데, 宇는 空間이며, 宙는 곧 時間이다. 따라서 宇宙는 本來부터가 時空統一體인 것이다. 『管子』중에 나오는 “宙合”이나 『墨子』중에 보이는 “宇久”는 모두 “宇宙”와 相應하여 時空統一의 概念을 표현하는 것들이다.

중국 先秦時期에 형성된 時空統一의 개념은 上古時代의 “觀象授時”에서 기원한 것으로, 어떤 문명이든 고대 시대에는 모두가 이같은 “觀象授時”의 時期를 거쳤다. 이는 曆法이 아직까지도 완비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면, 아침에 太陽이 떠오르기 전에 동쪽하늘에서 어떤 별을 관측했다면 바로 날씨가 급방 더워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黃昏에 어떤 별자리가 마침 정남방에 출현하였다면 지금이 몇 월인지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이 星象에 근거해서 일 년의 季節을 판단하는 것을 바로 “觀象授時”라고 한다.⁴⁷⁾ 이상은 中國 先秦時期에 이미 공간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하거나 시간을 기준으로 공간을 측정할 수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古代에서부터 이미 시간과 공간을 분리한다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었다.

班固는 “四方, 四時之體”(『漢書·律曆志』)라고 하여, 時間과 空間의 관계를 四方이 體가 되고 四時가 用이 되는 體用一體의 關係로 把握하였다. 이같은 時空合一의 특성은 각종 時空模型을 통해서도 쉽게 把握할 수 있다. 各時空模型의 陰陽, 五行, 四象, 八卦 등이 모두 時空의 意味를 同時에含蓄하고 있다⁴⁸⁾. 예를

47) 李烈炎, 時空學說史. 湖北人民出版社, 1987, 22쪽.

48) 각 시공모형이 귀해서는 拙稿 “『黃帝內經』중의 시공모형에 대한 연구”(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15권 1

들어, 陰陽時空模型에서 陰陽은 『內經』에서 天地, 春夏-秋冬, 晝夜, 前後, 表裏, 上下, 男女, 左右 등을 가리킨다. 天地, 前後, 表裏, 內外, 左右 등은 空間의 陰陽이며, 晝夜, 春夏-秋冬, 上半年-下半年 등은 時間의 陰陽이다. 陰陽을 時間과 空間으로 區分하면 위와 같이 區分할 수 있으나 둘의 概念은 서로 別個로 獨立적으로 存在할 수 없으며, 항상 연결 지어 생각해야 한다. 時間의 陰陽과 空間의 陰陽은 서로 密接한 聯關을 맺고 있다. 즉 낮이 되면 陽氣가 主管하는데 陽氣는 주로 밖에서 活動하며, 밤이 되면 陰氣가 主管하는데 陰氣는 주로 안에서 活動한다. 또 春夏에는 陽氣가 主管하며 全體적으로 氣가 外部로 發散하는 傾向이 强하며, 秋冬에는 陰氣가 主管하는데 全體적으로 氣가 内部로 收斂하는 傾向이 强하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의 “陽生陰長, 陽殺陰藏”이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陰陽者는 天地之道也오 萬物之綱紀오 變化之父母오 生殺之本始오 神明之府也니 治病必求於本이니라”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天地는 單純한 空間的 天地가 아니라 時空合一의 宇宙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문장은 陰陽이 바로 時空의 內在規律임을 암시하고 있다. 五行時空模型에서 木은 東方을 意味하면서 同時에 1年中의 春을 意味한다. 火는 南方을 意味하면서 同時에 夏를 意味한다. 이것은 氣의 運動과 密接한 연관이 있다. 時間이 春에서 夏로 흘러간다는 것은 곧 東에서 南으로의 空間移動을 意味한다. 이러한 時空一體思想을 人體에 應用한 것이 時臟理論, 四時刺法, 四時脈法 等이다.

왜 시간과 공간을 不可分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은 事物의 運動變化가 時間과 空間에 모두 密接한 聯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事物의 運動變化는 空間의 移動을 意味하며 空

間의 移動은 곧 時間의 流逝를 隨伴한다. 따라서 事物과 時間과 空間 세 가지는 恒常 서로 聯繫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內經』의 입장에서 볼 때, 宇宙萬物은 모두 氣의 升降出入을 통해 化生되는데, “是以로 升降出入은 無器면 不有하니, 故로 器者는 生化之宇오, 器散則分之하야 生化息矣니이다.”(『素問·六微旨大論』) 라고 하였다. 여기서 ‘器(物體)’는 바로 生化가 이루어지는 空間(宇)이며, ‘生化’는 곧 氣의 升降出入에 의한 事物의 運動變化로서 時間의 흐름(宙)을 반영한다. ‘器’가 흩어지면 事物이 소멸되고 事物의 運動變化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空間이 없이는 時間 역시 存在할 수 없음을 間接적으로 示唆하는 말이다. 이로부터 『內經』의 時空一體思想을 엿볼 수 있다. 『內經』은 世界의 모든 萬物은 本質적으로 力動的이며 時間과 空間의 變化를 本來부터 內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宇宙란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살아있고, 時間과 空間이 有機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불가분의 實在라고 認識하였다. 결국 시간과 공간은 모두 기의 승강출입에 의한 것으로 그 근원이 같으므로 당연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이다.

4) 恒動循環

이는 時空의 恒動性和 非可逆性을 가리킨 것으로, 음양오행의 작용 원리에 따른 기의 운동변화의 특징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 중국 철학은 이미 시공의 항동성과 비가역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易傳』중의 “日新之謂盛德, 生生之謂易”(『繫辭上』), “自強不息” 등은 萬物이 끊임없이 運動變化한다고 認識한 것이다. 이런 恒動性에 두가지가 있는데 直線性和 循環性, 즉 環型性(또는 圓型性)이다. “周易”의 “周”에는 週期, 循環의 意味가 있으며, 易은 곧 變化를 意味하니, “周易”이라는 말 자체에

호, 279~309쪽, 2002.2.28)에 자세히 밝혀놓았다.

이미 循環的 時空觀이 內包되어있다. 循環性
은 週期성을 가리킨다. 『周易·恒卦·彖傳』에
“天地之道 | 恒久而不已也니라. 利有攸往은 終
則有始也르새니라. 日月이 得天而能久照하며
四時 | 變化而能久成하나니……”라고 하였는
데, 宇宙란 끊임없는 循環을 反復하면서 永遠
히 存在하는 것으로, 每年 春夏秋冬, 또는 8節
氣, 12月 等の 過程을 거치면서 陰陽消長의
變化를 나타낸다고 認識한 것이다. 이는 環型
의 時間概念이다. 太極圖, 12辟卦圖, 先後天八
卦圖 等の 六爻週期, 八卦週期, 十二辟卦週期,
六十四卦週期등이 모두 圓型的 時空觀念을 反
映하는 것들이다. 『周易·復卦』의 卦辭인 “反復
其道, 七日來復”, 역시 易學의 圓型思考를 反
映한 것이다.

이밖에 『周易·繫辭上』에서는 “原始反終”이
라 했는데, 여기서 始는 過去, 原因이며, 終은
未來, 結果이다. 이 句節은 過去를 보면 未來
를 豫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時間이 過
去에서 現在로 現在에서 未來로 흘러간다는
假定下에서 成立되는 것이다. 또 『周易·豫卦·
彖傳』에 “天地 | 以順動이라 故로 日月이 不
過而四時 | 不忒하고……”라고 했는데, 이는
春-夏-秋-冬의 順序가 自然의 正常的인 變化
規律임을 말한 것이다. 이상은 모두 非可逆의
直線性 時間概念을 反映한 것이다. 戰國時代
管子는 明確하게 時間의 非可逆性을 主張하
는데, 그는 “昔之日已往而不來矣”(『管子·乘馬』)
라고 하였다. 이는 古代 中國의 直線的 時間
觀을 반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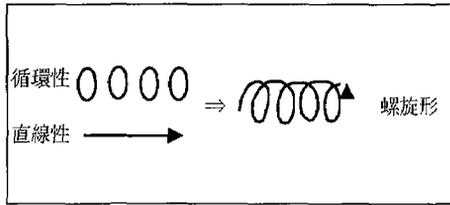
『內經』 역시 萬物運動變化의 循環性을 인식
하였는데, 『素問·六節藏象論』에 “終朞之日, 周
而復始, 時立氣布, 如環無端”이라 하였다. 또 『
素問·熱論』에 보이는 熱病의 發展 및 衰退 過
程 그리고 『傷寒論』 중의 六經 週期 역시 순
환적 시간관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周易』의
“反復其道, 七日來復”과도 논리상 상당히 一致
한다.

『內經』에 보이는 陰陽週期, 四象週期, 五行
週期, 六氣週期, 八風週期, 十干週期, 十二支週
期, 六十甲子週期 等은 모두 時空의 週期性을
反映하는 것이다. 衛氣와 營氣의 循環, 十二經
脈의 循環 等이 그 具體的인 例이다.

『內經』은 時間이 過去에서 現在로, 現在에서
未來로 一方向으로만 前進한다고 보았다. 이는
一種의 非可逆的인 直線性 時間概念이다.

『素問·玉版論要』와 『素問·玉機眞藏論』에 “神
轉不迴, 迴則不轉, 乃失其機”라 하고, 王冰은 「
玉版論要」에서 注하기를 “血氣者는 神氣也라, 「
八正神明論」에 曰血氣者는 人之神이니 不可不
謹養也라하니. 夫血氣는 應順四時하야 遞遷囚
王한대 不合하면 却行하고 却行則反常하고 反
常則回而不轉也니, 回而不轉이면 乃失生氣之
機矣니라. 何以明之오? 夫木衰則火王하고 火
衰則土王하고 土衰則金王하고 金衰則水王하고
水衰則木王하야 從而復始循環하니 此之謂神轉
不回也니라. 若木衰水王하고 水衰金王하고 金
衰土王하고 土衰火王하고 火衰木王하면 此之
謂回而不轉也니라. 然反天常軌하니 生之何有
耶오!”라고 했고, 『玉機眞藏論』의 주석에서는
“五氣循環호대 不愆時叙면 是 | 爲神氣 | 流轉
不回니라. 若却行衰旺하야 反天之常氣면 是는
則却回而不轉이라 由是却回不轉이면 乃失生氣
之機矣니라”라고 하였다. 王冰은 “轉”을 時間의
흐름과 相應하는 血氣의 正常的인 運行規律로,
회를 時間에 거스르는 非正常的인 運行規律로
이해했다. 그는 木-火-土-金-水의 運行에는 恒
상 一定한 順序가 있으며 이를 거꾸로 거스를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즉 그의 意見을 따른
다면 『內經』은 時間이 單方向으로 順行만할 뿐
逆流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여기서 『內經』의 非
可逆的 時間觀을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內經』의 時空觀은 直線的 時間
概念과 環型的 時間概念이 并存한다. 直線性
은 方向性을, 循環性은 週期性을 가리킨다. 두
概念을 합치면 새로운 螺旋型的 時空模型이



형성된다.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이 비록 같은 木에 屬하는 것이지만 그 位置가 이미 前進해 있어서 그 실제 內容은 分明히 같지 않다. 이는 單純한 機械的 循環이 아님을 意味한다. 즉 宇宙는 “終則有始” 또는 “周而復始” 하는 過程 속에서 不斷히 새로운 內容을 創出한다.

『內經』의 이같은 관점은 기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운동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만물이 끊임없이 운동변화한다는 氣論과 만물이 계속 반복 순환한다는 음양오행이론이 저변에 깔려 있다.

5) 系統層次

운동변화하는 모든 유기체는 계통층차성을 갖는다는 것이 『內經』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내경』은 만물을 음양, 오행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계통화 하였는데, 각 계통 내에는 일정한 층차가 존재한다. 동시에 계통과 계통 사이 그리고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 사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합적인 생명체를 구성한다. 이러한 내경 사유의 계통층차적 특징은 사실 整體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사물은 하나의 整體이며, 사물 내부의 각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분리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정체관의 기본 관점이다. 『內經』은 인체 자체를 유기적 정체 즉 태극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파악한다. 따라서 인체 자신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증시하는 동시에 우주는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나머지 부분인 자연환경 및 사회 환경과의 통일성 및 연관성도 증시한다. 우리가 흔히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체관을 잘 표현하는 말이다.

먼저 구조적 系統性을 살펴보면, 하나의 정체는 여러개의 子系統으로 構成되며 각 子系統이 모여 하나의 정체를 完成한다. 따라서 각 子系統은 相互不可分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陰陽으로 구분하면 정체는 陰系統과 陽系統으로 構成되며, 五行으로 구분하면 木系統, 火系統, 土系統, 金系統, 水系統으로 구성된다. 각 계통은 상호 견제와 협조 등의 긴밀한 작용을 통해 하나의 정체를 유지해간다.

각각의 계통은 내부에 층차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基本的인 層次 구조는 宇宙自然-人體의 層次構造模式이다. 이는 天人相應思想을 根據로 形成된 것인데, 『內經』은 形態構造的 側面에서 人間과 天地自然은 서로 對應한다고 認識하였다. 예를 들면, 天圓地方-頭圓足方, 日月-兩目, 九州-九竅, 風雨-喜怒, 電雷-音聲, 四時-四肢, 五音-五臟, 六律-六腑, 365일-365節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앞의 “天人相應觀”에서 논하였다.

人體 自體에도 系統層次構造가 存在하는데, 우선 인체는 三陰三陽經絡을 中心으로 하는 經絡機能系統과 五臟을 中心으로 하는 藏府機能系統으로 區分된다. 經絡機能系統은 人體에 대한 陰陽論的 認識에서 비롯된 것이며, 五臟機能系統은 五行論的 認識을 根據로 成立된 것이다. 經絡機能系統은 氣血의 循環을 中心으로 하는 外生理를 擔當하며, 經絡機能系統은 精氣의 循環을 中心으로 하는 內生理를 擔當한다. 藏府機能系統은 人體의 機能을 五行屬性에 따라 五藏六腑를 中心으로 分類한 機能體系이다. 經絡機能系統은 陰陽에서 分化한 三陰三陽理論에 따라 人體의 機能을 三陰三陽經脈을 中心으로 分類한 機能體系이다.⁴⁹⁾ 藏府機能系統과 經絡機能系統은 陰陽과 五行에

있어서, 陰陽에 五行이 包含되고 五行에 陰陽이 包含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經絡機能系統中에 藏府機能系統이 包含되며, 藏府機能系統中에 經絡機能系統이 包含된다.

또 藏府機能系統과 經絡機能系統은 各各 精氣와 氣血循環을 中心으로 機能活動을 維持하면서, 同時에 상호 資生하고 상호 協調한다. 즉 藏府機能系統을 中心으로 하는 內生理는 精을 使用하여 生命을 維持 存續하고 氣血을 化生하여 外生理機能에 基礎를 提供해 주고, 經絡機能系統을 中心으로 하는 外生理는 生成된 氣血을 利用하여 다시 精을 生成하므로써 內生理가 圓滑히 維持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五臟系統은 藏府-經絡-五體(筋, 脈, 肌肉, 皮毛, 骨髓)-五官(目, 舌, 口, 鼻, 耳)等の 層次構造가 存在한다. 각각의 층차는 그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위 층차는 하위 층차에 영향을 미치고 하위 층차는 상위 층차의 구성 요소 즉 기초가 된다. 經絡과 藏府의 층차구조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整體로서, 宇宙整體 및 生命整體구조의 기본이 되는 층차구조이다.

계통층차성은 시간에 대한 인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年, 月, 日, 時가 가장 쉽게 認識할 수 있는 가장 基本的인 時間의 層次構造이다. 年은 月로 구성되고, 月은 日로 구성되고, 日은 時로 構成되어, 年, 月, 日, 時의 사이에는 일종의 整體와 部分, 系統과 要素의 관계가 있다.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 1년을 四時로 나누듯이 1일을 네 개의 시간 단위로 나누고, 1년의 四時와 1일의 四시에 相應하는 陰陽變化가 일어난다고 認識한 것이 그 예이다. 月의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朔弦望晦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

이밖에, 『素問·六節藏象論』에서 “五日謂之候, 三候爲之氣, 六氣爲之時, 四時爲之歲

49) 拙稿, 仲景『傷寒論』의 六經實質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4.; 57

나라”라고 한것도 時間에 對한 系統層次的 認識을 反映한 것이다⁵⁰⁾.

최근 현대과학의 시스템이론이 바로 『內經』의 系統層次觀과 유사하다. 시스템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사유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은 시스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모든 사물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상호간에 에너지, 물질, 정보를 교류한다. 전체로서의 시스템은 서로 다른 층차의 구조들로 구성되며, 한단계 높은 시스템의 내부구조의 요소들은 한단계 낮은 시스템의 구조 층차를 포함한다. 한단계 높은 구조층차는 한단계 낮은 구조 층차 상호간에는 적극적인 연관 혹은 작용이 나타난다.⁵¹⁾ 이를 천인상응론에 대입시킨다면 높은 구조층차는 천지자연에, 낮은 구조층차는 인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IV. 結 論

모든 사물은 본체와 운행(작용) 두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內經』의 氣論은 바로 본체에 대한 愚性體系라고 볼 수 있다. 이는 氣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주체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사물의 작용방면에서 본체인 氣가 어떻게 運行하고 變化하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고 체계는 陰陽五行論이 이에 해당한다.

『內經』에서 말하는 氣는 無時不有, 無處不在, 運動不息, 無形有徵의 실체로서 자연만물과 인간생명의 근원이며, 동시에 운동변화의

50) 시간에 대한 계통층차적 인식은 고대 중국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管子·宙合第十一外言二』에서 “歲有春夏秋冬하고, 月有上下中旬하고, 日有朝暮하고, 夜有昏晨하고, 半星辰序各有其司하니, 故曰天不一時니라”라고 하였다. (李丹·榮挺進 譯注, 管子白話今譯, 中國書店, 1997: 101쪽)

51) 김관도·유청봉 위음, 김수중 외 2인 번역, 『중국문화의 시스템론적 해석』, 도서출판 天池, 1994. pp. 238~242 참조

주체이다.

『內經』에서 기의 운행 또는 작용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사유체계가 있다. 하나는 陰陽論이고, 다른 하나는 五行論이다. 음양의 승강과 진퇴소장운동은 천지만물의 본체인 기가 운동변화는 기본 형식으로 사시의 계절 변화와 만물이 생성, 변화, 발전하는 규율이 되며, 만물은 모두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內經』 오행론의 가장 큰 특징은 계통화이다. 즉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사물을 다섯가지로 계통화하고, 대표하는 사물의 속성에 따라 각 계통의 특성을 규정하였다. 동시에 이들 다섯가지 계통을 만물의 운동 변화를 주도하는 다섯가지 세력으로 인식하고, 만물의 운동 변화를 다섯가지 세력 간의 상호 유기적인 작용으로 파악하였다.

『內經』은 氣論과 陰陽五行論을 근간으로 자연의 이치, 인간 생명활동의 이치, 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독특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天人相應觀, 形神合一觀, 時空統一觀, 恒動循環觀, 系統層次觀 등이다.

天人相應思想은 자연과 인간이 모두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시에 음양오행이 운행의 공통규율이라는 전제 하에 형성된 것이다.

『黃帝內經』에서는 인간을 정신과 육체가 결합한 존재로 인식하였으며, 만약 두요소가 서로 떨어지면 생명은 곧 소멸된다고 생각했다. 『黃帝內經』의 이러한 인간관을 形神合一論의 人間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氣論과 陰陽五行論을 바탕으로 성립된 사유특징이다.

時空統一思想은 時空一體性을 말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은 모두 기의 승강출입에 의한 것으로 그 근원이 같으므로 당연히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이다.

恒動循環思想은 기가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운동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만물이 끊임없이 운동

변화한다는 氣論과 만물이 계속 반복순환한다는 음양오행이론이 저변에 깔려 있다.

운동변화하는 모든 유기체는 계통층차성을 갖는다는 것이 『內經』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內經』은 만물을 음양, 오행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계통화 하였는데, 각 계통 내에는 일정한 층차가 존재한다. 동시에 계통과 계통 사이 그리고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 사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통합적인 생명체를 구성한다.

參考文獻

1. 經典類
1. 素問(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서울)
2. 靈樞(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서울)
3. 周易(原本備旨原本周易, 太山文化社, 1984. 서울)
4. 書經(原本備旨書傳集註, 太山文化社, 1984. 서울)
5. 管子(漢文大系21-管子纂詁, 富山房, 1984. 東京)
6. 荀子(漢文大系15-荀子, 富山房, 1984. 東京)
7. 春秋左氏傳(南晚星·金相一 譯解, 左氏傳, 三省出版社, 1987. 서울)
8. 禮記(李民樹 譯解, 三省出版社, 1987. 서울)
9. 老子(張基槿·李錫浩 譯解, 老子·莊子, 三省出版社, 1987. 서울)
10. 莊子(張基槿·李錫浩 譯解, 老子·莊子, 三省出版社, 1987. 서울)
2. 단행본
1. 吳光, 黃老之學通論, 浙江人民出版社, 1985. 杭州

2. 이차크 벤토프 지음, 류시화·이상무 옮김,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정신세계사, 1992. 서울.
3. 강대봉, 氣, 도서출판 언립, 1994. 서울, 王琦 外 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서울.
4. 張介賓, 類經圖翼, 大星文化社, 1986. 서울.
5.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1986. 서울.
6. 폴 데이비스 지음, 류시화 옮김, 현대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 정신세계사, 1989. 서울.
7. 李烈炎, 時空學說史, 湖北人民出版社, 1987.
8. 李丹·榮挺進 譯注, 管子白話今譯, 中國書店, 1997. 北京.
9. 김관도·유청봉 엮음, 김수중 외 2인 번역, 중국문화의 시스템론적 해석, 도서출판天池, 1994.

3. 논문류

1.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경희한의대 논문집 제19권 제2호, pp. 174~223, 1997. 2.
2. 丁彰炫, “『黃帝內經』의 形神關係論”, 대한원전의학회지 Vol.11, No.2, pp. 27~35, 1998.1 2. 28.
3. 丁彰炫, “『內經』의 月令(四時)-身體部位 配屬에 대한 易學的 解析”, 대한원전의학회지 Vol.12, No.2, 1999. 10. 31.
4. 丁彰炫, “黃帝內經 中の 時空模型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5권 1호, 279~309, 2002. 2. 28.
5. 丁彰炫, “『黃帝內經』 時空認識의 特徵”,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5권 2호, pp. 41~51, 2002. 10. 7.